

국경 넘은 대동·나눔... '광주 정신' 빛났다



환자 치료하는 전남대병원 의료진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이 오른팔에 고통을 호소하는 현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네팔=김진수 기자

지난달 25일 네팔에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80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앞선 데 덮친격으로 지난 12일에는 규모 7.3의 강진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네팔인들은 슬픔과 절망을 넘어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에 광주시는 '대동·나눔'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1차 구호단을, 이어 8일 2차 구호단을 네팔에 긴급 파견해 네팔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과 슬픔을 위로하는 활동을 펼쳤다. 1·2차 구호단에는 민간단체인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와 (사)희망나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시소방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진피해로 전기도 끊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잇따른 여진 공포와 싸우면서 네팔인들 구호에 적극 참여했다.

/jeans@kwangju.co.kr



즐거는 환자들 2차 광주구호단이 자리한 네팔 랄릿푸르 마니길 진료소를 찾은 네팔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이 네팔 현지 시민단체인 '아스타-자(Asta-Ja)' 자원봉사자들의 통역 도움을 받아 환자들의 혈압 등을 체크하고 있다.



방역 활동하는 119구조대원

광주시소방본부 119 구조구급대원들이 네팔 랄릿푸르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료 받으러 가자"

광주 의료진들의 진료활동 소식을 들은 네팔 현지인들이 산악마을의 교통수단인 트럭을 타고 광주 의료·구호캠프를 찾고 있다.



◀ 임시천막 생활

네팔 카트만두 더바르(Dur-Bar) 광장에서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 천막 뒷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옛 왕궁들이 지진으로 반파된 모습.

▶ 가옥 복구작업

광주시소방본부 119 구조구급대원들이 네팔 랄릿푸르 마니길 카단마을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창사 63주년

매력이 넘치는 귀농귀촌 1번지

귀농귀촌

축령산 휴양림